

2010년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풀이

by 호이호이꿀떡

정답 체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①	③	①	②	③	④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X	③	②	③	①	④	④
							②		
							④		

문 1. 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우정사업의 조직·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편·우편대체·우체국 금융 및 보험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편역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① 우편법
- ②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 ③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 ④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답 ④

- ④ [p.4] 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인사·예산·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오답 체크> ① [p.3]
 가)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우편 특권·우편 서비스의 종류·이용 조건·손해 배상·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p.4] (현재 명칭 변경)
 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문 2. 다음 우편서비스 중 송달기준이 가장 긴 것은?

- ① 특별송달 ② 등기소포
- ③ 민원우편 ④ 당일특급

답 ①

[p.10]

나. 우편물 배달기한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일반소포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 등기소포 - 접수한 다음날
 당일특급 -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① [p.28]

특별송달은 특별송달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 통상**으로 송달하고,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한다.
 -> 따라서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오답 체크> ③ [p.28]

민원우편의 송달은 **익일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
 -> 따라서 접수한 다음날

문 3. <보기>에서 설명한 국내우편서비스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ㄱ. 개인의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와 나란히 인쇄·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ㄴ.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의 주소지로 방문하여 접수하고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해 주는 서비스
 ㄷ. 전국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 특산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 | ㄱ | ㄴ | ㄷ |
|-----------|---------|-------|
| ① 나만의 우표 | 우체국꽃배달 | 우체국쇼핑 |
| ② 우체국경조카드 | 우체국꽃배달 | 우체국택배 |
| ③ 나만의 우표 | 우체국택배 | 우체국쇼핑 |
| ④ 광고우편 | 우체국경조카드 | 우체국택배 |

답 ③

- ㄱ. [p.33] 4. 나만의 우표
- ㄴ. [p.17] 제4절 방문접수(우체국택배)
- ㄷ. [p.30] 제1절 우체국쇼핑 ㄱ. 특산물

<오답 체크> ① [p.30]

우체국 쇼핑 중 꽃배달: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꽃배달 신청을 할 경우 전국의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④ [p.32]

광고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에 광고를 실어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도이다.

문 4.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특급우편은 전국 전 지역을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한다.
- ② 보험취급에는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가 있다.
- ③ 증명취급에는 내용증명,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이 있다.
- ④ 특별송달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답 ①, ③

- ① [p.26]
국내특급: 당일특급과 익일특급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지역 간에 수발되는 긴급한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부가취급에 부가된 우편 서비스
- ③ [p.25]
증명취급에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 있다.
<오답 체크>
- ② [p.22]
제2절 보험취급: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보험소포(안심소포)
- ④ [p.28] 1. 특별송달

문 5.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 ② 우편물의 보관교부는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최장 30일이다.
- ③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사서함우편물 중 국내특급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한다.
- ④ 교통이 불편한 도서·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에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마을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한다.

답 ②

- ② [p.57]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로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10일에서 최대 +30일 연장 -> 따라서 **최장 40일**
<오답 체크> ① [p.55] 가. 동일건물 내의 일괄배달
- ③ [p.56] 나.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
- ④ [p.57] 마. 공동우편함 배달

문 10. 우체국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체국보험은 인보험(人保險)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 ②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 ③ 우체국보험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 ④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진다.

답 ②

② 우체국금융 등 우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정사업 본부를 설치하여 총괄하고 있다.

<오답 체크> ① 보험은 사람의 신체·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보험(생명보험)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물보험(손해보험)이 있는데, 우체국은 인보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④ [p.193]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체국보험에서는 국가가 보험자이므로,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문 11. 전자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체국 CD/ATM 무매체거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 은행의 무매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1369'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텔레뱅킹서비스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실지명의를 확인된 기명식 선불카드는 물품할부구매가 가능하다.
- ④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답 ②

② [p.72]
'1369'를 이용하는 대고객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별도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이체나 지로대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① [p.69]
무매체 거래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무매체거래용 고유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뒤 CD/ATM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고유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p.77]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고 발급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기능이 없고 유효기간도 보통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단, 실지명의를 확인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할 수 있음)

④ [p.105]
경조금배달서비스는 우체국방문,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 폰뱅킹(☎1588-1900)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래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아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기준일 2010년 7월 1일이 아닌 2018년 7월 1일로 생각해서 풀 것)

문 12. <보기>의 '우정'이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제외)의 최대 가입금액은?

<보기>

《우정'이 가족 현황》

ㄱ. 할아버지(만 78세)

ㄴ. 아버지(만 58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ㄷ. 어머니(만 55세)

ㄹ. 우정'이(만 22세)

ㅁ. 온정'이(만 18세)

※ 가입기준일 : 2010년 7월 1일 현재

- ① 8천만원 ② 1억원
- ③ 1억 2천만원 ④ 1억 5천만원

답 ②

(!!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은 없고, 비과세 종합저축만 있다. !!)

[p.53]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세율 : 0%
 가입한도 : 5,000만원
 대상 :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 노인(남녀 만 65세 이상 / 단, 2015년 가입자 : 만 61세 이상, 2016년 가입자 : 만 62세 이상, 2017년 가입자 : 만 63세 이상, 2018년 가입자 : 만 64세 이상)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가족은 ㄱ. 할아버지와 ㄴ. 아버지뿐이다. 1인당 5,000만원 한도이므로, 총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문 13.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운용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소비대차계약이다.
- ②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 ③ 점외수금의 경우, 지점장(우체국장)은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④ 공동대표이사과 거래 시 공동대표 1인이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

답 ②

② [p.47] [p.60]

양도성예금증서(CD)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점유 이전에 의한 양도가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오답 체크> ① [p.2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소비임치계약이다.

③ [p.24]

일반 수금직원은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 단,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우체국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

④ [p.39]

공동대표이사제도에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위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14. <보기>의 금융상품 중 우체국예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ㄴ. MMF(Money Market Fund)
 ㄷ. CD(Certificate of Deposit)
 ㄹ. RP(Re-purchase Paper)
 ㅁ. CMA(Cash Management Account)
 ㅂ. ELD(Equity Linked Deposit)

-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ㅂ

답 정답없음

- ㄱ. [p.54]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우체국**, 은행
- ㄴ. [p.61]
 환매조건부채권 (RP): **우체국**,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 <오답 체크> ㄴ. [p.55]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 ㄷ. [p.60]
 양도성예금증서 (CD):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ㅁ. [p.56]
 어음관리계좌 (CMA):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 ㅂ. [p.60]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ELD): 은행

기준에 ELD에 우체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삭제되었다.

문 15.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는 상승한다.
 ②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③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④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답 ③

③ [p.164]
 < 예정사업비율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는 상승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관련된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이다.
 순보험료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해 계산된다.

<오답 체크> ① [p.163]
 < 예정사망률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사망률과 위험보험료는 비례 관계.
 사망률이 올라가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올라가고 사망보험금 지급시기가 빨리 도래하므로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위험보험료가 상승한다.

② [p.163]
 < 예정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이율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반비례 관계.
 이율이 올라가면,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가 많이 붙어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이 늘어난다. 보험료를 덜 받아도 보험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가 하락한다.

④ [p.163]
 < 예정사망률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사망률과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반비례 관계.
 사망보험과 달리 생존보험은 생존해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그러므로 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률이 올라가므로 생존보험의 보험금이 많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문 16.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생존보험 계약은 만 15세 미만자를 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답 ②

② [상법 보험편 제649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오답 체크> ① [p.194]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p.194]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생존이나 사고, 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은 만 15세 미만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④ [p.194] 다. 피보험자

문 17.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된다.
- ②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정부분만 보상된다.
- ③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가 보상된다.
- ④ 보험계약이 갱신되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답 ③

[p.221] 6.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③ [p.224]

6.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오답 체크> ① [p.224]

8.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대부분의 실손보장 보험상품들은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장한다. 이는 여러 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려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② [p.223]

4. 상급병실료 차액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 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④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상품은 삭제되었으므로, 문제는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으로 맞춰서 푼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기 선택지가 모두 꼬였으므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

문 18.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플러스연금보험 2종(연금저축)의 가입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18세 미만자는 가입할 수 없다.
- ② 보험료는 일시납을 선택할 수 없다.
- ③ 납입기간은 10년납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월 보험료는 1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답 ①, ②, (④)

[p.309] 2.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

- ① 가입나이: 만15~(A-5)세
연금개시나이(A): 55~70세
- ② 납입기간: 일시납, 5, 10, 15, 20년납
보험료로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납입기간: 일시납, 5, 10, 15, 20년납
- ④ 가입한도액 : 0.5구좌~3구좌(0.1구좌 단위), 1구좌 : 생존연금액 300만원
10년납의 1구좌 기준 월납 보험료가 40~50만원 수준이다. 3구좌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
다만, 0.1구좌 단위로 가입해야 하므로 100만원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Drinking wine can damage your teeth. That is the conclusion of a report from the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in Mainz, Germany. Researchers tested the effects of eight red and eight white wines on teeth from men and women aged between 40 to 65. They discovered all of the wines damaged the enamel that protects our teeth. This makes our teeth more sensitive to hot and cold food and drinks. It also means the teeth will stain quicker if someone drinks coffee. The research team said white wine causes more damage than red. The acid in white wines attacks the enamel and wears it away. The bad news is that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wine will only make things worse

- ① They experimented on people with sixteen wines.
- ② It is reported that wine can harm the enamel of our teeth.
- ③ Wine makes our teeth more susceptible to hot drinks.
- ④ After a glass of wine, brush your teeth to protect them.

답 ④

해석) 와인을 마시는 것은 당신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독일 마인츠의 요한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의 연구 결과이다. 연구원들은 8종류의 레드 와인과 8종류의 화이트 와인이 40세에서 65세의 남녀(실험참가자)들의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와인이 우리의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리의 치아가 뜨겁거나 찬 음식과 음료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또한 커피를 마신다면 그 치아를 색이 더욱 바래지도록 만든다. 연구팀은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 더 손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와인에 든 산성 물질이 에나멜을 공격하고 차츰 닳게 만든다. 안 좋은 소식은 와인을 마신 뒤 양치질을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단어) stain 더러워지다, 얼룩, 오점
 wear away 차츰 닳다, 닳게 만들다
 susceptible 민감한, 예민한

- ④ 와인을 한잔한 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양치질을 하시오.
 -> 마지막 문장에서, 와인을 마신 뒤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 <오답 체크> ① 그들은 16종의 와인을 사람들에게 실험했다.
 ② 와인이 우리 치아의 에나멜에 해롭다고 보고되었다.
 ③ 와인은 우리의 치아를 뜨거운 음료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문 20. 다음 대화를 읽고, 여성고객(W)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M : What can I do for you?
 W : I'd like to send a parcel to Australia by EMS.
 M : OK. What's inside of it?
 W : Clothes, cosmetics, seaweed, and hairspray.
 M : I'm sorry, but you can't send hairspray by EMS.
 W : Why not?
 M : Inflammable things aren't allowed into the aircraft for safety reasons.
 W : Is that so? Then, is there any other way available?
 M : You can mail it by sea, but it'll take 45 to 60 days.
 W : It takes too long. I'd rather take out hairspray from my parcel and use EMS.
 M : OK. You're all set. Thank you.

- ① To send her parcel by sea.
- ② To make a protest to the airport.
- ③ To check out other options available.
- ④ To mail her parcel without hairspray.

답 ④

해석) M: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 소포를 EMS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내고 싶어요.

M: 좋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나요?

W: 옷, 화장품, 김(미역), 그리고 헤어스프레이요.

M: 죄송합니다만, 헤어스프레이는 EMS로 보낼 수 없습니다.

W: 왜 안 되죠?

M: 안전상 이유로 인화성 물질은 항공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W: 그래요?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M: 선편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요, 45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W: 너무 오래 걸리네요. 소포에서 헤어스프레이를 꺼내고 EMS로 보내는 게 낫네요.

M: 좋아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parcel	소포, 꾸러미
inflammable	인화성, 격앙된
take out	꺼내다 내놓다
protest	항의하다, 시위
check ~ out	~을 확인하다, 조사하다

- ④ 헤어스프레이를 제외하고 소포를 보낸다.
 -> I'd rather take out hairspray from my parcel and use EMS.
 를 통해 헤어스프레이를 빼고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그녀의 소포를 선편으로 보낸다.

② 공항에 항의한다.

③ 다른 가능한 옵션을 확인한다.